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안전학회와 춘계학술대회 공동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과 (사)한국안전학회(회장 장성록)는 5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공동개최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안전과 미래’를 주제로 하는 전문세션 3개를 포함해 총 12개 세션에서 203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국내외 산학계에서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어 ‘산업안전 학술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였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지금의 안전은 안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시대에서 안전을 제대로 해야하는 시대로 발전하는 과도기적 시점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산업안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에 대한 변화추세를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과거 기계·전기·건설·화공안전 등 단편적인 안전에서 재난·리스크·인간·시스템·정책·원자력·반도체 등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 전문세션을 개최하려는 경향이 확연히 드러났다.

특히 우리 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합동으로 개최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개념 및 사례소개’ 전문세션은 시스템적 안전개념인 “레질리언스 엔지니어링”의 이론과 기법을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는 등 안전에 대한 변화추세를 한 눈에 읽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